

2002年度  
外投企業 經營活動 隘路調査 報告書

2002. 12.

외국인투자지원센터

目 次

- 0. 조사 개요 ..... 1
- 0. 요약 ..... 2
- 1. 향후 1-2년간 한국경제 전망 ..... 7
- 2. 한국경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 ..... 8
- 3. 한국내 사업환경에 대한 평가 ..... 10
- 4. 전년과 비교한 투자 및 영업환경 평가 ..... 14
- 5. 한국 비즈니스문화의 국제화수준 ..... 16
- 6. 국제수준과 비교한 한국 생활환경 평가 ..... 12
- 7. 최근 비즈니스 애로 및 고충 ..... 18
- 8. 중국과 한국의 투자환경 비교 ..... 18
- 9. 아시아지역 지역본부 소재 여부 ..... 20
- 10. 향후 수익증가율 전망 ..... 22
- 11. 향후 1-2년내 투자계획 ..... 24
- 12. 투자자금 조달방법 ..... 26
- 13. 세무 애로 및 건의 사항 ..... 28
- 14. 조사응답업체 개요 ..... 34
- 15. 설문서 양식 ..... 34

## 調査概要

- 
- 조사기간 : 2002년 10월 21일 ~ 11월 30일
  
  - 조사대상
    - 외국인 투자기업 2,500개사
  
  - 조사방법
    - 설문서 발송 및 홈페이지 개별접촉 수거
  
  - 조사내용
    - 외투기업의 한국경제 전망 및 개선과제 조사
    - 외투기업의 증액투자 또는 투자철수 계획 파악
    - 한국내 투자환경 및 생활환경, 비즈니스수준에 관한 의견조사
    - 투자환경 개선정도 파악
    - 외투기업의 경영활동 애로 및 고충사항 조사
  
  - 조사결과
    - 응답업체는 총 266개사임 (회수율 10.6%)
    - 이중 제조업체는 185개사(69.5%), 비제조업체는 81개사(30.5%)임
    - 투자국별로는 미국계 기업 60개사(22.5%), 유럽계 기업 75개사(28.2%), 일본계 기업 103개사(38.7%), 기타 28개사(10.5%)임
-

● 要約 ●

## 외국인 투자업체들 “투자확대 긍정적”

- 한국경제의 개선과제는 투명성향상, 정치안정 등 -
- 비즈니스 최대 걸림돌은 노무 및 조세분야 -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최근의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향후 1-2년간 한국내 투자확대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또한 한국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투명성향상, 정치안정 등을 꼽았으며, 노무 및 조세분야 애로를 한국내 비즈니스 최대 걸림돌로 지적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지원센터(KISC)가 지난 10.21-11.30일간 국내 266개 외국인 투자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2년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활동 애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업체들의 절반수준인 44%가 향후 1-2년내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응답, 투자기업들이 對韓 투자확대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반면 투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답한 업체는 11.3%에 불과했다.

투자기업들은 향후 1-2년간 한국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비교적 낙관적인 입장을 보인 가운데 한국경제의 가장 시급한 3大 당면과제는 투명성향상, 정치안정, 금융분야 구조조정이라고 지적하였다.

한국내 사업환경에 대한 만족도조사에서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국내시장 규모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커 한국시장에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인프라, 물류비 등 간접비용 뿐만 아니라 인건비, 제품가격 등 직접비용 부담이 높아 비용측면에서는 한국의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비즈니스문화 국제화 정도를 묻는 질문에 최근 많이 개선되었으

나 여전히 국제수준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년에 비해 커뮤니케이션, 민간비즈니스관행이 상대적으로 향상되었으나 정부행정, 규제완화, 부정부패 등의 분야는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었다.

비즈니스 애로를 겪었다는 외국인 투자업체는 조사대상업체의 35%를 기록한 가운데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애로 및 고충사항이 주로 노무 및 조세관련 분야에 집중되어 이들이 경영활동에 큰 장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내 생활환경과 관련, 외국인 투자업체들이 겪는 가장 큰 애로는 교통과 교육, 주거 등으로 나타나 외국인 투자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들 분야의 획기적인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향후 수익증가 전망을 밝게 보고 있다. 2003년의 경우 수익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 업체는 87.6%에 달해 2002년 82.7%보다 증가하였으며, 수익감소를 전망한 업체는 12.4%로 2002년 18.0%보다 크게 줄었다.

한편 중국과 한국의 투자환경을 비교한 조사에서 투자기업들의 73.7%가 저임금 및 방대한 내수시장을 들어 '중국이 한국에 비해 유리하다'고 응답해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對중국투자 선호경향이 더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시아지역 지역본부의 소재여부와 관련해 응답업체의 절반수준인 132개사가 아시아에 지역본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답변하였으며, 아시아 지역본부 보유비중은 제조업보다는 비제조업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중 투자자금 조달 방법에 대하여는 내부자금조달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외국자본 조달, 금융차입, 정책자금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금번 설문조사를 결과를 세부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한국경제 전망 : 비교적 낙관적**

향후 1-2년간 한국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33.8%가 낙관적으로 응답하였으며, 42.1%가 현재와 비슷하다는 반응을, 24.1%가 비관적인 반응을 각각 보였다. 지역별로는 미국업체 33.4%, 유럽업체 37.4%, 일본업체 26.2%가 각각 낙관적인 견해를 나타내 제조업비중이 높은 일본계 투자 기업들의 낙관적인 견해 비중이 다소 낮았다. 업종별로는 비제조업체가 제조업체에 비해 한국경제에 대해 비교적 낙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제조업체 32.9%, 비제조업체 35.8%)

### **한국경제 개선과제 : 투명성향상, 정치안정, 금융구조조정**

한국경제가 당면한 주요 개선과제는 투명성향상이 25.6%, 정치안정 19.8%, 금융분야 구조조정 15.4%, 기업지배구조 개혁 14.8%, 노동시장 자유화 14.3%, 인프라개선 8.8%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밖에도 한국경제의 개선과제로서 노사관계의 안정, 규제완화, 기업문화 개선, 외국인투자 활성화 등을 지적한 업체도 1.4%에 달했다.

### **한국내 사업환경 : 내수시장 투자매력**

한국내 사업환경에 대한 평가에서 국내시장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내수시장에 대한 만족도가 42.8%, 인건비 등 직접비용에 대한 만족도가 16.9%, 일반관리비 등 간접비용에 대한 만족도가 16.2%로 나타났다. 이는 투자대상으로서의 한국의 매력포인트는 '국내시장'이지만 전반적인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 **투자환경 : 자금조달 개선, 조세분야 미흡**

전년과 비교한 투자 및 영업환경 평가에서 개선되었다는 답변은 자금조달 33.0%, 수출입통관 22.9%, 공장설립 21.4%, 보건·환경·안전 19.2%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조세부문과 공장설립부문에서 각 71.1%의 업체가 전년과 바뀐 게 없다고 답변했으며 이어 수출입통관 66.5%, 부동산취득 및 임대 59.0% 등의 순이었다. 잇단 금리인하 등에 힘입어 금년에 자금조달부문이 가장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비즈니스문화 : 민간비즈니스관행, 규제완화 개선해야**

한국 비즈니스문화에 대해서는 민간비즈니스관행, 비즈니스매너, 규제완화 등은 50%이상의 업체가 전년과 변동이 없다고 답변했다. 전년에 비해 개선되었다는 답변은 커뮤니케이션 29.0%, 비즈니스매너 27.4%, 민간비즈니스관행 25.6%, 규제완화 19.1%, 정부행정 14.3% 순이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비즈니스문화에 대한 개선정도가 적어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비즈니스문화 및 정부부문의 국제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생활환경 : 교통, 교육분야 불만족**

한국내 생활여건에 대한 만족율은 38.0%로 불만족율 18.9%에 비해 높았으며, 보통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은 43.1%를 기록하였다. 한국내 생활환경에 만족하지 않은 업체들은 40%가 교통문제를 가장 큰 애로사항이 꼽았고, 이어 교육 22.0%, 주택 16.0%, 의사소통 10.0%, 의료서비스 6.0% 등으로 조사되었다. 투자기업들의 한국내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았지만 교통 및 교육, 주거문제 등의 대폭적인 손질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 **투자전망 : 긍정적**

향후 1-2년내 투자계획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2년내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답한 업체는 44.0%에 달한 반면 투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답한 업체는 11.3%로 투자확대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업종별로 보면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비제조업부문 46.9%, 제조업부문 42.7%에 각각 달해 향후 투자는 비제조업분야에서 비교적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의 투자자금 조달방법은 외국자본 35.0%, 내부자금 41.9%를 차지했다. 미국 및 유럽계 외투기업은 외국자본 조달, 일본계 외투기업은 내부자금 조달비중이 높아 큰 차이를 보였다.

### **비즈니스고충 : 노무 및 세무분야 최대 애로**

응답업체의 35.0%가 최근 한국에서의 사업시 비즈니스 애로 또는 고충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35.1%, 비제조업 34.6%로 각각 나타나 제조업, 비제조업 불문하고 공히 고충경험이 높았다. 애로 또는 고충을 분야별로 보면 노무분야가 30.1%로 가장 높아 노사관계 안정 및 고용관계 등이 투자기업들의 최대 당면과제로 떠올랐다. 다음으로 세무 21.5%, 기타 17.2%, 금융 9.7%, 부동산구입 및 임차 7.5% 순이었다. 기타 애로 및 고충은 외산제품 배척, 인허가관계, 환경법규, 거래처의 단가인하 압력 등이 주류를 이루었다.

### **투자환경 비교 : 73.7% '중국 유리'**

투자기업의 73.7%가 투자환경에 대해 중국이 한국에 비해 유리하다고 답변하였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체는 76.8%, 비제조업체는 66.7%가 중국이 유리하다고 응답해 제조업의 중국투자 선호경향이 더 강했다. 투자기업들은 중국의 저임금과 내수시장 잠재력이 투자매력이라고 지적하였으나 투자원금회수의 불확실성, 불합리한 투자규정, 행정의 불투명성은 한국에 비해 열위라고 지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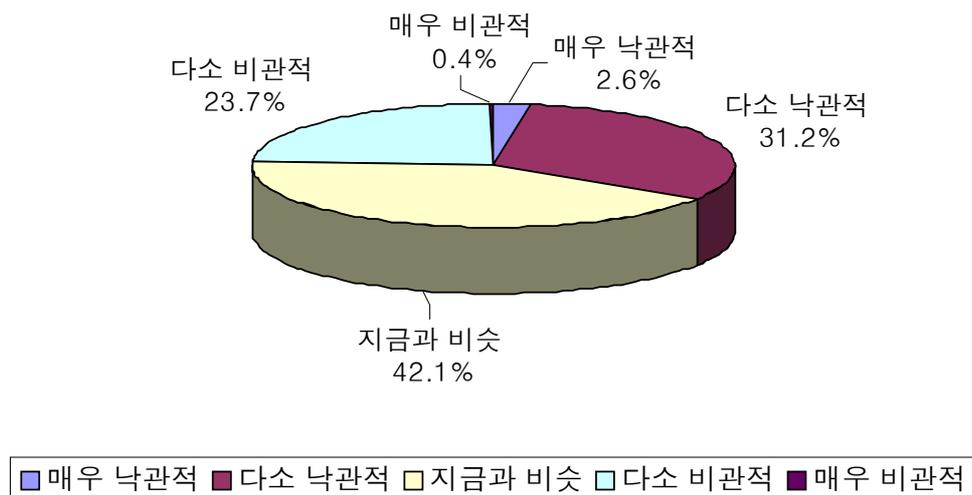
### **수익률 : 개선 전망**

향후 수익증가 전망이 금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수익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 업체가 많았다. 2003년의 경우 수익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 업체는 87.6%로서 2002년 82.7%보다 소폭 증가하였다. 2003년에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응답한 업체는 12.4%로 2002년 18.0%보다 적어 금년 수익감소업체들의 개선전망이 밝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에는 수익증가율면에서 0-10% 증가율을 예상한 업체가 50.4%로 가장 많았다.

## 1. 향후 1-2년간 한국경제 전망

-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한국경제에 대한 전망은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는 견해가 많은 가운데 낙관적인 견해가 다소 우위를 나타냄
  - 33.8%의 업체가 향후 1-2년간 한국경제에 대해 낙관적임
  - 24.1%가 업체가 향후 1-2년간 한국경제에 대해 비관적임
- 42.1%의 업체가 향후 1-2년간 한국경제에 대해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고 전망해 가장 많았음
- 지역별로는 유럽업체의 37.4%, 미국업체의 33.4%, 일본업체 26.2%가 낙관적인 전망을 하였음
- 업종별로는 제조업체의 32.9%, 비제조업체의 35.8%가 낙관적인 전망을 하였음

향후 한국경제 전망



향후 1-2년간 한국경제에 대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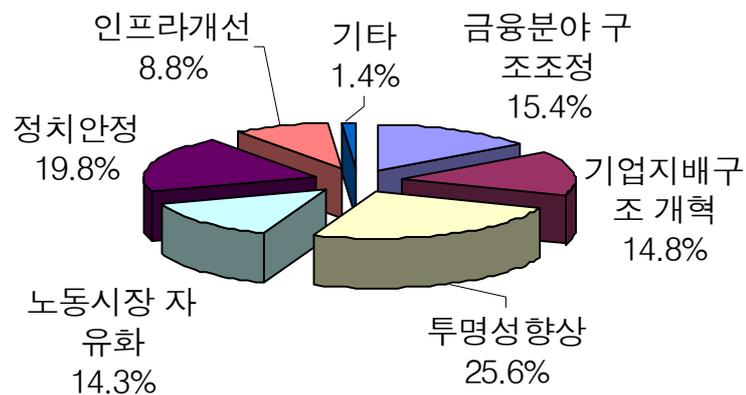
(개사, %)

|        |                | 업종             |               | 국가            |               |                |               |
|--------|----------------|----------------|---------------|---------------|---------------|----------------|---------------|
|        |                | 제조업            | 비제조업          | 미국            | 유럽            | 일본             | 기타            |
| 매우 낙관적 | 7<br>(2.6)     | 6<br>(3.2)     | 1<br>(1.2)    | 1<br>(1.7)    | 5<br>(6.7)    | 0<br>(0.0)     | 1<br>(3.6)    |
| 다소 낙관적 | 83<br>(31.2)   | 55<br>(29.7)   | 28<br>(34.6)  | 19<br>(31.7)  | 23<br>(30.7)  | 27<br>(26.2)   | 14<br>(50.0)  |
| 지금과 비슷 | 112<br>(42.1)  | 80<br>(43.2)   | 32<br>(39.5)  | 30<br>(50.0)  | 27<br>(36.0)  | 45<br>(43.7)   | 10<br>(35.7)  |
| 다소 비관적 | 63<br>(23.7)   | 43<br>(23.2)   | 20<br>(24.7)  | 10<br>(16.7)  | 19<br>(25.3)  | 31<br>(30.1)   | 3<br>(10.7)   |
| 매우 비관적 | 1<br>(0.4)     | 1<br>(0.5)     | 0<br>(0.0)    | 0<br>(0.0)    | 1<br>(1.3)    | 0<br>(0.0)     | 0<br>(0.0)    |
| 계      | 266<br>(100.0) | 185<br>(100.0) | 81<br>(100.0) | 60<br>(100.0) | 75<br>(100.0) | 103<br>(100.0) | 28<br>(100.0) |

## 2. 한국경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

- 한국경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투명성향상으로 나타남
- 분야별 중요도 순으로 보면 투명성향상이 25.6%로 가장 높았고, 이어 정치안정 19.8%, 금융분야 구조조정 15.4%, 기업지배구조 개혁 14.8%, 노동시장 자유화 14.3%, 인프라 확충 8.8% 순으로 각각 나타남
- 이밖에 한국경제의 중요과제로서 노사관계의 안정, 규제완화, 기업 문화 개선, 외국인투자 활성화 등을 지적한 업체도 1.4%에 달함

### 한국경제의 과제



## 한국경제의 개선과제

(개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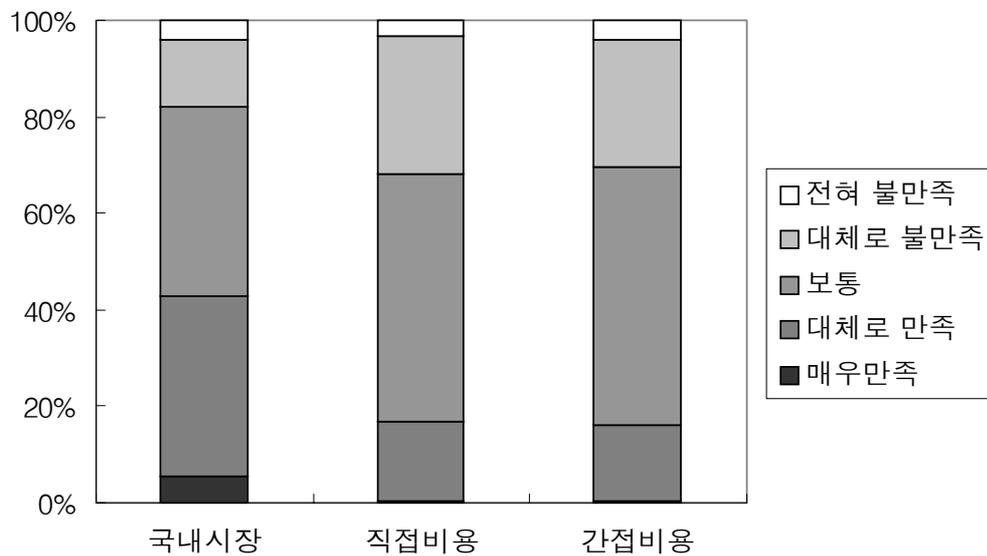
| 계              | 금융분야<br>구조조정  | 기업지배<br>구조 개혁 | 투명성<br>향상     | 노동시장<br>자유화   | 정치안정          | 인프라<br>개선   | 기타          |
|----------------|---------------|---------------|---------------|---------------|---------------|-------------|-------------|
| 798<br>(100.0) | 123<br>(15.4) | 118<br>(14.8) | 204<br>(25.6) | 114<br>(14.3) | 158<br>(19.8) | 70<br>(8.8) | 11<br>(1.4) |

주) 3개 항목까지 복수응답

### 3. 한국내 사업환경에 대한 평가

- 한국내 사업환경은 국내시장 규모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음
- 부문별로 보면 한국시장의 수요에 대한 만족도는 42.8%를 나타낸 반면 불만족도는 18.0%에 그침
- 그러나 인건비 등 직접비용에 대해서는 16.9%의 업체가, 인프라 및 관리비 등 간접비용에 대해서는 16.2%만 만족한다고 각각 답변해 만족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됨

한국내 사업환경 평가



## 사업환경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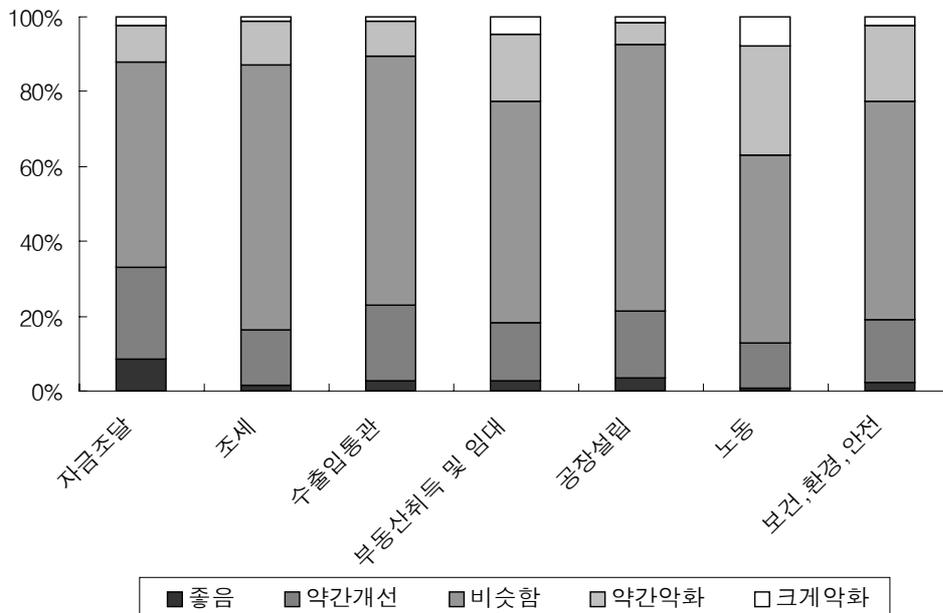
(개사,%)

|         | 국내시장 수요        | 노무비 등<br>직접비용  | 일반관리비 등<br>간접비용 |
|---------|----------------|----------------|-----------------|
| 매우 만족   | 15<br>(5.6)    | 1<br>(0.4)     | 1<br>(0.4)      |
| 대체로 만족  | 99<br>(37.2)   | 44<br>(16.5)   | 42<br>(15.8)    |
| 보통      | 104<br>(39.1)  | 136<br>(51.1)  | 142<br>(53.4)   |
| 대체로 불만족 | 37<br>(13.9)   | 76<br>(28.6)   | 70<br>(26.3)    |
| 전혀 불만족  | 11<br>(4.1)    | 9<br>(3.4)     | 11<br>(4.1)     |
| 계       | 266<br>(100.0) | 266<br>(100.0) | 266<br>(100.0)  |

#### 4. 전년과 비교한 투자 및 영업환경 평가

- 자금조달부문을 제외한 조세, 관세 및 통관, 공장설립 등 대부분 부문에서 60%이상의 업체가 전년과 비슷하다고 답변
  - 특히 조세부문과 공장설립부문에서 각 71.1%의 업체가 전년과 바뀐 것이 없다고 답변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수출입 통관 66.5%, 부동산취득 및 임대 59.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부문별 투자환경 평가에서 전년에 비해 가장 많이 좋아진 부문은 자금조달부문으로 나타남
- 좋아졌다는 답변이 가장 많은 부문별 순서로는 자금조달 33.0%, 수출입통관 22.9%, 공장설립 21.4%, 보건·환경·안전 19.2%, 부동산취득 및 임대 18.4% 등의 순으로 조사됨

투자 및 영업환경 평가



전년 대비 투자 및 영업환경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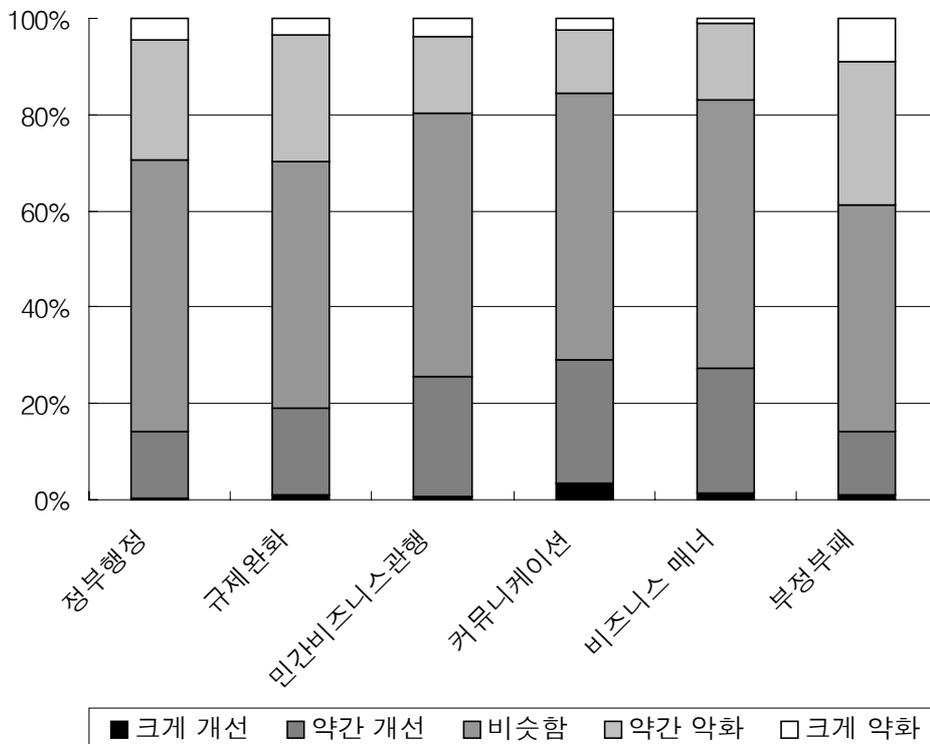
(개사, %)

|          | 자금조달           | 조세             | 수출입<br>통관      | 부동산취득<br>및 임대  | 공장설립           | 노동             | 보건,환경,<br>안전   |
|----------|----------------|----------------|----------------|----------------|----------------|----------------|----------------|
| 좋음       | 23<br>(8.6)    | 4<br>(1.5)     | 7<br>(2.6)     | 7<br>(2.6)     | 9<br>(3.4)     | 2<br>(0.8)     | 6<br>(2.3)     |
| 약간<br>개선 | 65<br>(24.4)   | 39<br>(14.7)   | 54<br>(20.3)   | 42<br>(15.8)   | 48<br>(18.0)   | 32<br>(12.0)   | 45<br>(16.9)   |
| 비슷함      | 146<br>(54.9)  | 189<br>(71.1)  | 177<br>(66.5)  | 157<br>(59.0)  | 189<br>(71.1)  | 134<br>(50.4)  | 155<br>(58.3)  |
| 약간<br>악화 | 26<br>(9.8)    | 31<br>(11.7)   | 25<br>(9.4)    | 48<br>(18.0)   | 16<br>(6.0)    | 77<br>(28.9)   | 54<br>(20.3)   |
| 크게<br>악화 | 6<br>(2.3)     | 3<br>(1.1)     | 3<br>(1.1)     | 12<br>(4.5)    | 4<br>(1.5)     | 21<br>(7.9)    | 6<br>(2.3)     |
| 계        | 266<br>(100.0) |

## 5. 한국 비즈니스 문화의 국제화 수준

- 한국 비즈니스문화의 개선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민간비즈니스관행, 비즈니스매너, 규제완화 등의 부문에서 50%이상의 업체가 전년과 변동이 없다고 답변
- 전년과 동일하다고 답변한 업체를 부문별로 보면 정부행정 56.4%, 비즈니스매너 55.6%, 민간비즈니스 관행 54.9%, 규제완화 51.1%로 각각 나타남
- 전년대비 개선되었다고 답변한 업체를 부문별로 보면 커뮤니케이션이 29.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비즈니스매너 27.4%, 민간비즈니스 관행 25.6%, 규제완화 19.1%, 정부행정 14.3% 순으로 각각 나타남

한국 비즈니스문화의 국제화수준



한국 비즈니스 문화 개선 정도

(개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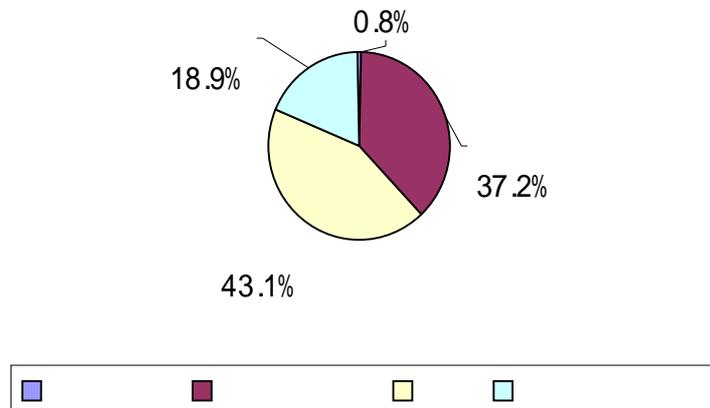
|       | 정부행정           | 규제완화           | 민간<br>비즈니스<br>관행 | 커뮤니<br>케이션     | 비즈니스<br>매너     | 부정부패           |
|-------|----------------|----------------|------------------|----------------|----------------|----------------|
| 크게 개선 | 1<br>(0.4)     | 3<br>(1.1)     | 2<br>(0.8)       | 9<br>(3.4)     | 4<br>(1.5)     | 3<br>(1.1)     |
| 약간 개선 | 37<br>(13.9)   | 48<br>(18.0)   | 66<br>(24.8)     | 68<br>(25.6)   | 69<br>(25.9)   | 35<br>(13.2)   |
| 비슷함   | 150<br>(56.4)  | 136<br>(51.1)  | 146<br>(54.9)    | 148<br>(55.6)  | 148<br>(55.6)  | 125<br>(47.0)  |
| 약간 악화 | 66<br>(24.8)   | 70<br>(26.3)   | 42<br>(15.8)     | 35<br>(13.2)   | 42<br>(15.8)   | 79<br>(29.7)   |
| 크게 악화 | 12<br>(4.5)    | 9<br>(3.4)     | 10<br>(3.8)      | 6<br>(2.3)     | 3<br>(1.1)     | 24<br>(9.0)    |
| 계     | 266<br>(100.0) | 266<br>(100.0) | 266<br>(100.0)   | 266<br>(100.0) | 266<br>(100.0) | 266<br>(100.0) |

## 6. 국제수준과 비교한 한국 생활환경 평가

### 1) 생활여건 평가

- 국제적인 수준과 비교할 때 한국내 생활여건에 대한 질문에 대해 ‘대체로 만족’이라는 답변이 ‘대체로 불만족’이라는 답변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남
- 한국내 생활여건에 대해 만족율은 38.0%로 불만족율 18.9%에 비해 높았으며, 보통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은 43.1%를 기록함

생활환경 평가



한국내 생활환경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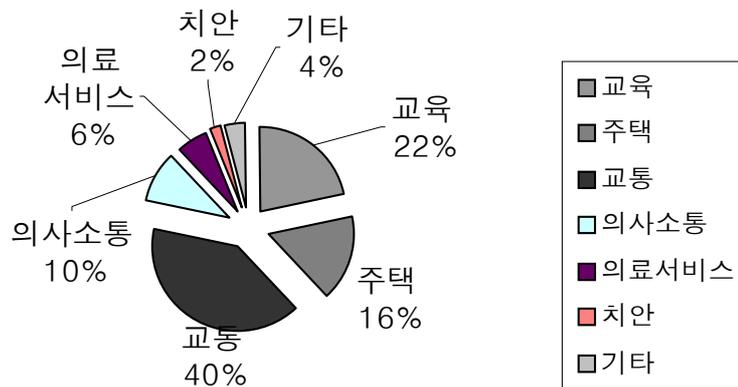
(개사, %)

| 계              | 매우 만족      | 대체로 만족       | 보통            | 대체로 불만족      | 매우 불만족     |
|----------------|------------|--------------|---------------|--------------|------------|
| 264<br>(100.0) | 2<br>(0.8) | 98<br>(37.2) | 114<br>(43.1) | 50<br>(18.9) | 0<br>(0.0) |

2) 분야별 생활환경 애로

-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한국내 생활여건과 관련해 겪는 가장 큰 애로는 ‘교통’으로 나타남
- 한국내 생활환경에 만족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부문별 애로사항을 보면 교통문제가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꼽은 업체가 40.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교육 22.0%, 주택 16.0%, 의사소통 10.0%, 의료서비스 6.0% 등의 수준으로 나타남

생활환경 애로



분야별 애로

(개사, %)

| 계             | 교육           | 주택          | 교통           | 의사소통        | 의료서비스      | 치안         | 기타         |
|---------------|--------------|-------------|--------------|-------------|------------|------------|------------|
| 50<br>(100.0) | 11<br>(22.0) | 8<br>(16.0) | 20<br>(40.0) | 5<br>(10.0) | 3<br>(6.0) | 1<br>(2.0) | 2<br>(4.0) |

## 7. 최근 비즈니스 애로 및 고충

### 1) 고충 및 애로 경험 여부

- ‘최근 비즈니스 애로 및 고충을 겪은 일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35.0%가 ‘있다’, 나머지 65.0%가 ‘없다’고 답변
- 국별로는 유럽업체의 40.0%, 일본업체의 35.0%, 미국업체의 30.0%가 각각 최근에 비즈니스애로를 겪은 것으로 조사됨
-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35.1%, 비제조업의 34.6%가 애로를 겪은 것으로 나타남

### 최근 비즈니스 고충 및 애로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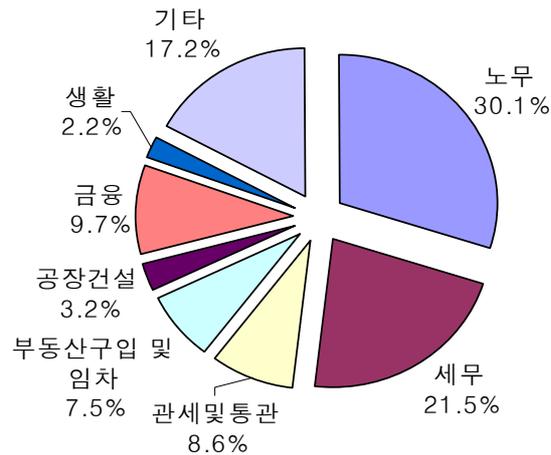
(개사,%)

|    |                             | 업종             |               | 국가            |               |                |               |
|----|-----------------------------|----------------|---------------|---------------|---------------|----------------|---------------|
|    |                             | 제조업            | 비제조업          | 미국            | 유럽            | 일본             | 기타            |
| 있다 | <b>93</b><br><b>(35.0)</b>  | 65<br>(35.1)   | 28<br>(34.6)  | 18<br>(30.0)  | 30<br>(40.0)  | 36<br>(35.0)   | 9<br>(32.1)   |
| 없다 | <b>173</b><br><b>(65.0)</b> | 120<br>(64.9)  | 53<br>(65.4)  | 42<br>(70.0)  | 45<br>(60.0)  | 67<br>(65.0)   | 19<br>(67.9)  |
| 계  | 266<br>(100.0)              | 185<br>(100.0) | 81<br>(100.0) | 60<br>(100.0) | 75<br>(100.0) | 103<br>(100.0) | 28<br>(100.0) |

## 2) 분야별 애로 및 고충

-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겪은 애로 및 고충은 노무 및 세무분야가 가장 높게 나타남
- 부문별 고충 경험 순위는 노무 30.1%, 세무 21.5%, 기타 17.2%. 금융 9.7%, 부동산구입 및 임차 7.5% 순으로 나타남
- 기타 애로 및 고충은 외산제품 배척, 인허가, 환경법규, 단가인하압력 등으로 조사됨

분야별 애로 및 고충



분야별 고충 및 애로

(개사, %)

| 계             | 노무           | 세무           | 관세 및 통관    | 부동산 구입 및 임차 | 공장 건설      | 금융         | 생활         | 기타           |
|---------------|--------------|--------------|------------|-------------|------------|------------|------------|--------------|
| 93<br>(100.0) | 28<br>(30.1) | 20<br>(21.5) | 8<br>(8.6) | 7<br>(7.5)  | 3<br>(3.2) | 9<br>(9.7) | 2<br>(2.2) | 16<br>(17.2) |

## 8. 중국과 한국의 투자환경 비교

- 중국과 한국의 투자환경 비교와 관련해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73.7%가 ‘중국이 한국에 비해 유리하다고’고 답변
-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체는 76.8%, 비제조업체는 66.7%가 중국이 유리하다고 응답해 제조업의 중국투자 선호경향이 더 강한 것으로 조사됨
- 중국의 투자우위점으로는 50.7%가 인건비, 33.8%가 내수시장 잠재력이라고 각각 답변해 중국투자는 저임금과 내수시장이 가장 큰 투자매력이 되고 있음을 반영함
- 반면 중국의 투자열위점으로는 43.7%가 투자원금회수의 불확실성을 꼽았으며 다음으로 23.0%가 불합리한 투자규정, 13.8%가 행정의 불투명성, 10.3%가 인프라 및 저생산성 등 기타를 지적함

### 중국과 한국의 투자환경 비교

(개사, %)

|          | 계              | 업종             |               |
|----------|----------------|----------------|---------------|
|          |                | 제조업            | 비제조업          |
| 중국이 유리하다 | 196<br>(73.7)  | 142<br>(76.8)  | 54<br>(66.7)  |
| 그렇지 않다   | 70<br>(26.3)   | 43<br>(23.2)   | 27<br>(33.3)  |
| 계        | 266<br>(100.0) | 185<br>(100.0) | 81<br>(100.0) |

### 한국에 대한 중국의 투자우위

(개사, %)

| 계              | 인건비           | 양질의<br>노동력  | 사회<br>간접자본 | 투자<br>지원정책  | 내수시장<br>잠재력  | 기타         |
|----------------|---------------|-------------|------------|-------------|--------------|------------|
| 290<br>(100.0) | 147<br>(50.7) | 15<br>(5.2) | 9<br>(3.1) | 18<br>(6.2) | 98<br>(33.8) | 3<br>(1.0) |

주) 2개 복수응답 가능, 102개 업체는 1개만 응답

### 한국에 대한 중국의 투자열위

(개사, %)

| 계             | 행정의<br>불투명성  | 불합리한<br>투자규정 | 투자원금<br>회수의<br>불확실성 | 정치불안       | 기타<br>(인프라미비,<br>시장의 미성숙,<br>저생산성 등) |
|---------------|--------------|--------------|---------------------|------------|--------------------------------------|
| 87<br>(100.0) | 12<br>(13.8) | 20<br>(23.0) | 38<br>(43.7)        | 8<br>(9.2) | 9<br>(10.3)                          |

주) 2개 복수응답 가능, 53개 업체는 1개만 응답

## 9. 아시아지역 지역본부 소재 여부

- 아시아지역 지역본부의 유무를 묻는 질문에 응답업체의 절반수준인 132개업체가 아시아 지역본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답변한 가운데 아시아 지역본부 보유비중은 제조업보다는 비제조업에서 높게 나타남
- 아시아 지역본부 소재지는 28.8%가 싱가포르를 꼽아 가장 높았으며, 이어 동경 23.5%, 홍콩 19.7%, 서울 10.6%, 상해 7.6% 순으로 나타남. 기타지역은 마닐라, 쿠알라룸푸르, 대만 등임

### 아시아지역 지역본부 유무 여부

(개사, %)

|    | 계              | 업종             |               |
|----|----------------|----------------|---------------|
|    |                | 제조업            | 비제조업          |
| 있다 | 132<br>(49.6)  | 86<br>(46.5)   | 46<br>(56.8)  |
| 없다 | 134<br>(50.4)  | 99<br>(53.5)   | 35<br>(43.2)  |
| 계  | 266<br>(100.0) | 185<br>(100.0) | 81<br>(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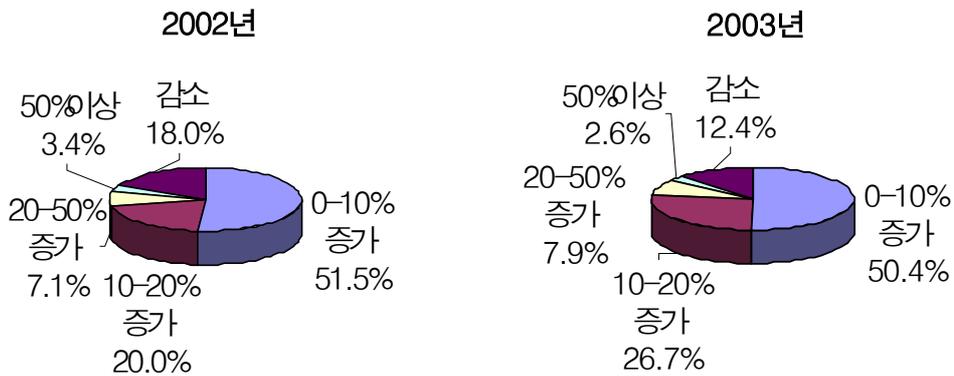
### 아시아지역 지역본부 소재지

(개사, %)

| 계              | 홍콩           | 싱가포르         | 상해          | 동경           | 서울           | 기타          |
|----------------|--------------|--------------|-------------|--------------|--------------|-------------|
| 132<br>(100.0) | 26<br>(19.7) | 38<br>(28.8) | 10<br>(7.6) | 31<br>(23.5) | 14<br>(10.6) | 13<br>(9.8) |

## 10. 향후 수익증가율 전망

-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향후 수익증가 전망이 금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음
- 2003년의 경우 수익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 업체는 87.6%로서 2002년 82.0%보다 소폭 늘어나는데 머물렀음
- 증가율별로 보면 0-10% 증가율이 50.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0-20%증가율이 26.7%, 20-50%증가율이 7.9%에 달함
- 한편 2002년의 경우 수익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은 82.0%, 수익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은 18.0%로 각각 나타난 가운데 0-20% 증가율이 51.5%로 가장 많음



## 향후 수익증가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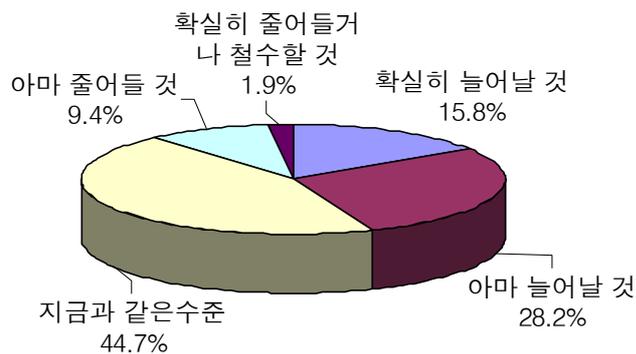
(개사, %)

|              |                | 업종             |               | 국가            |               |                |               |
|--------------|----------------|----------------|---------------|---------------|---------------|----------------|---------------|
|              |                | 제조업            | 비제조업          | 미국            | 유럽            | 일본             | 기타            |
| 2002년(계)     | 266<br>(100.0) | 185<br>(100.0) | 81<br>(100.0) | 60<br>(100.0) | 75<br>(100.0) | 103<br>(100.0) | 28<br>(100.0) |
| 감소           | 48<br>(18.0)   | 38<br>(20.5)   | 10<br>(12.3)  | 6<br>(10.0)   | 16<br>(21.3)  | 17<br>(16.5)   | 9<br>(32.1)   |
| 0-10%<br>증가  | 137<br>(51.5)  | 96<br>(51.9)   | 41<br>(50.6)  | 36<br>(60.0)  | 38<br>(50.7)  | 53<br>(51.5)   | 10<br>(35.7)  |
| 10-20%<br>증가 | 53<br>(20.0)   | 34<br>(18.4)   | 19<br>(23.5)  | 10<br>(16.7)  | 13<br>(17.3)  | 24<br>(23.3)   | 6<br>(21.4)   |
| 20-50%<br>증가 | 19<br>(7.1)    | 13<br>(7.0)    | 6<br>(7.4)    | 6<br>(10.0)   | 3<br>(4.0)    | 8<br>(7.8)     | 2<br>(7.1)    |
| 50%이상        | 9<br>(3.4)     | 4<br>(2.2)     | 5<br>(6.2)    | 2<br>(3.3)    | 5<br>(6.7)    | 1<br>(1.0)     | 1<br>(3.6)    |
| 2003년(계)     | 266<br>(100.0) | 185<br>(100.0) | 81<br>(100.0) | 60<br>(100.0) | 75<br>(100.0) | 103<br>(100.0) | 28<br>(100.0) |
| 감소           | 33<br>(12.4)   | 24<br>(13.0)   | 9<br>(11.1)   | 6<br>(10.0)   | 11<br>(14.7)  | 12<br>(11.7)   | 4<br>(14.3)   |
| 0-10%<br>증가  | 134<br>(50.4)  | 94<br>(51.0)   | 40<br>(49.4)  | 36<br>(60.0)  | 38<br>(50.7)  | 52<br>(50.5)   | 8<br>(28.6)   |
| 10-20%<br>증가 | 71<br>(26.7)   | 50<br>(27.2)   | 21<br>(25.9)  | 12<br>(20.0)  | 18<br>(24.0)  | 30<br>(29.1)   | 11<br>(39.3)  |
| 20-50%<br>증가 | 21<br>(7.9)    | 12<br>(6.5)    | 9<br>(11.1)   | 6<br>(10.0)   | 6<br>(8.0)    | 5<br>(4.9)     | 4<br>(14.3)   |
| 50%이상        | 7<br>(2.6)     | 5<br>(2.7)     | 2<br>(2.5)    | 0             | 2<br>(2.7)    | 4<br>(3.9)     | 1<br>(3.6)    |

## 11. 향후 1-2년내 투자계획

- 향후 1-2년내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답한 업체는 44.0%에 달한 반면 투자가 줄어든 것이라고 답한 업체는 11.3%에 달해 투자확대에 낙관적인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지금과 같은 수준일 것으로 답한 업체도 44.7%에 달해 투자 전망에 미온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외국인 투자기업 비중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업종별로 보면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비제조업부문에 46.9%이었으나 제조업부문은 42.7%에 달해 향후 투자는 비제조업부문에서 다소 활발해질 것으로 분석됨
- 지역별로는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기타지역업체 53.6%, 유럽업체 44.0%, 일본업체 42.7%, 미국업체 31.7% 순으로 나타남

향후 1-2년내 투자계획



향후 1-2년내 투자 증가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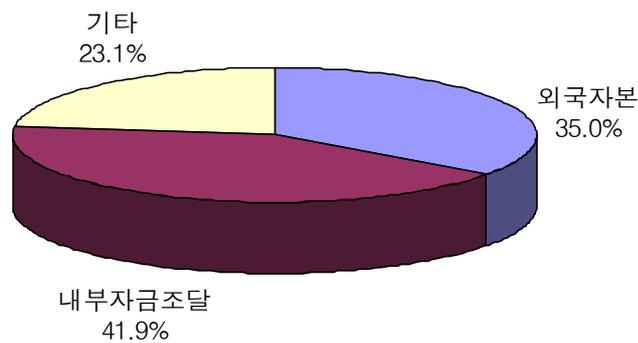
(개사, %)

|                       | 계                           | 업종             |               | 국가            |               |                |               |
|-----------------------|-----------------------------|----------------|---------------|---------------|---------------|----------------|---------------|
|                       |                             | 제조업            | 비제조업          | 미국            | 유럽            | 일본             | 기타            |
| 확실히<br>늘어날 것          | <b>42</b><br><b>(15.8)</b>  | 25<br>(13.5)   | 17<br>(21.0)  | 7<br>(11.7)   | 15<br>(20.0)  | 13<br>(12.6)   | 7<br>(25.0)   |
| 아마<br>늘어날 것           | <b>75</b><br><b>(28.2)</b>  | 54<br>(29.2)   | 21<br>(25.9)  | 18<br>(30.0)  | 18<br>(24.0)  | 31<br>(30.1)   | 8<br>(28.6)   |
| 지금과<br>같은 수준          | <b>119</b><br><b>(44.7)</b> | 78<br>(42.2)   | 41<br>(50.6)  | 31<br>(51.7)  | 34<br>(45.3)  | 43<br>(41.7)   | 11<br>(39.3)  |
| 아마<br>줄어들 것           | <b>25</b><br><b>(9.4)</b>   | 23<br>(12.4)   | 2<br>(2.5)    | 4<br>(6.7)    | 5<br>(6.7)    | 14<br>(13.6)   | 2<br>(7.1)    |
| 확실히<br>줄어들거나<br>철회할 것 | <b>5</b><br><b>(1.9)</b>    | 5<br>(2.7)     | 0             | 0             | 3<br>(4.0)    | 2<br>(1.9)     | 0             |
| 계                     | 266<br>(100.0)              | 185<br>(100.0) | 81<br>(100.0) | 60<br>(100.0) | 75<br>(100.0) | 103<br>(100.0) | 28<br>(100.0) |

## 12. 투자자금 조달방법

-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투자자금 조달방법은 내부자금이 외국자본보다 다소 높아 기업내부자금을 활용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분석됨
- 투자자금을 외국자본으로 조달하겠다는 업체는 35.0%, 내부자금으로 조달하겠다는 업체는 41.9%로 각각 나타난 가운데 미국 및 유럽계 외투기업은 외국자본 조달, 일본계 외투기업은 내부자금 조달 비중이 높아 큰 차이를 보였음
- 한편, 응답업체의 23.1%는 투자자금 조달방법으로 외국자본과 내부자금의 병행 조달, 금융차입, 관광진흥자금 등 정책자금 조달 등을 꼽았음

투자자금 조달방법



## 투자 자금 조달 계획

(개사, %)

|            | 계              | 업종            |               | 국가            |               |               |               |
|------------|----------------|---------------|---------------|---------------|---------------|---------------|---------------|
|            |                | 제조업           | 비제조업          | 미국            | 유럽            | 일본            | 기타            |
| 외국 자본      | 41<br>(35.0)   | 27<br>(33.8)  | 14<br>(37.9)  | 12<br>(48.0)  | 19<br>(55.9)  | 7<br>(15.6)   | 3<br>(23.0)   |
| 내부자금<br>조달 | 49<br>(41.9)   | 39<br>(48.7)  | 10<br>(27.0)  | 8<br>(32.0)   | 8<br>(23.5)   | 27<br>(60.0)  | 6<br>(46.2)   |
| 기타         | 27<br>(23.1)   | 14<br>(17.5)  | 13<br>(35.1)  | 5<br>(20.0)   | 7<br>(20.6)   | 11<br>(24.4)  | 4<br>(30.8)   |
| 계          | 117<br>(100.0) | 80<br>(100.0) | 37<br>(100.0) | 25<br>(100.0) | 34<br>(100.0) | 45<br>(100.0) | 13<br>(100.0) |

### 13. 세부 애로 및 건의 사항

#### 1) 투자 축소 및 철수 사유

|                        |  |                                  |
|------------------------|--|----------------------------------|
| 1. 경기부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수요 침체 및 이에 따른 경영수익 감소</li> <li>▪ 제품수요 부진 및 시장경쟁 격화</li> <li>▪ 내수 및 수출물량의 감소에 따른 축소 경영</li> <li>▪ 세계적인 경기침체 및 시장규모 축소</li> </ul>   | D사<br>S사<br>H사<br>N사             |
| 2. 경쟁력약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건비 상승(한국 임금수준은 중국에 비해 10배, 태국 및 말레이시아에 비해서는 4배 높은 편임)</li> <li>▪ 노동인건비 및 원자재가 상승하고 있는 반면 판매단가는 하락</li> <li>▪ 기업관리비용 및 간접적 부대비용 증가로 인한 투자의욕 상실</li> <li>▪ 원가부담 증대, 인력수급 애로, 가격경쟁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li> <li>▪ 인건비, 원부자재부문에서 아시아 국가에 비해 높은 원가율</li> <li>▪ 매년 과도한 인건비 및 물류비 양등, 제조 원가부담으로 인한 경쟁력 상실</li> <li>▪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한국 투자메리트 상실</li> <li>▪ 한국내 제조업 투자환경 매력 상실</li> </ul> | A사<br>C사<br>G사<br>S사<br>H사<br>W사 |
| 3. 對중국 투자확대 또는 생산기지 이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으로의 생산기지 이전 추진</li> <li>▪ 동종업체 공장이전에 따른 생산기지 이전 불가피</li> <li>▪ 일본 본사의 중국 투자확대</li> <li>▪ 중국시장 확보를 위한 중국투자 지속 추진</li> </ul>  | D사<br>H사<br>T사                   |
| 4. 투자완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2년 대규모 설비투자 완료에 따른 향후 축소투자 불가피</li> <li>▪ 2002년 대단위공장 신설에 따라 향후 투자는 유지 또는 보수분야에 그칠 것으로 예상</li> </ul>   | D사<br>K사                         |
| 5. 기타(경영환경 변화,인력난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내 실수요업체의 해외진출에 따라 생산 시설 축소</li> <li>▪ 해외모기업과 국내 투자선과의 관계</li> <li>▪ 인력시장의 고급화에 따른 하부 제조업 영위 애로</li> </ul>   | D사<br>H사<br>K사                   |

## 2) 최근 비즈니스 고충 및 사항

### 1. 공장건설 및 부지 관련

- 현재 천안공단내 임대부지를 사용중이나 유희 부지반납 독촉으로 인한 애로(H사)
- 공장증축에 대한 규제(P사)
- 부지규정 관련 법규 저촉 및 주민동의 문제로 인한 부지구입 애로(M사)
- 부동산 임차료의 대폭적인 인상으로 인한 애로(C사)
- 외국인 전용공단에 외국인투자비율 30%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입주하였으나 자본금 증자시마다 매번 외국인투자비율을 충족시키는데 애로가 있음(B사)
- 국유지 매입시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의견 상충시 지자체의 횡포에 대한 대책 필요(S사)

### 2. 세무

-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련하여 HQ의 B/S + P/L을 요구(R사)
- 행정편의 위주의 세무과징금 부과(U사)
- 지방세의 경우 세무관련 자료가 너무 많고, 공문내용이 매우 위협적임(예를들어, '미제출시 세무조사를 하겠다'라는 식의 내용, P사)
- 감면대상사업에 투자하고 발생한 취득세, 등록세의 환급(B사)
- 자본금 증자에 따른 조세감면 신청 기각(E사)
- 준조세 등 세금성 공과금 항목 증가로 추가부담 가중(물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H사)
- 외국인투자자의 과점주주 변경에 대한 취득세과세의 정당성과 이 전가격 문제(M사)
- 소급과세 부과 및 해당 절차상의 모순(H사)
- 세무조사시 실적 위주의 세금징수(P사)
- 담배소비세를 시·군·구에 내야 하는데 모든 시·군·구를 개별적으로 접촉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애로(P사)
- 지방세 증과세의 폐지(L사)

### 3. 관세 및 통관

- 사출성형기 제조를 위한 부품수입에 관세감면 적용 애로(E사)
- 제조용 원자재 수입품에는 관세부과, 완제품 수입시에는 관세면제 등 불합리한 관세제도 개선 필요(D사)
- 페츄니아 삼수(묘목) 수입금지에 따른 애로(H사)

### 4. 금융 · 외환

- 은행서비스의 불만족(J사)
- 지속적인 경영적자에 따른 금융차입 애로(P사)
-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조달의 어려움(B사)
- 신설법인에 대한 금융기관의 평가시 초기 적자 시현에 대한 신용 평가시 별도의 배려 필요(L사)
- 노조의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B사)

### 5. 법률 · 행정

-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신규투자업체에 행정지도, 교육, 컨설팅 위주의 사업부족(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행정 · 세무지도가 규제 → 단속 → 부과금의 행정처리 위주임, F사)
- 지나친 규제로 인해 간이천막이나 컨테이너박스 설치후 해당기관에 고발 및 철거명령 받음(B사)
- 한국과 일본의 화장품법률상 차이에 따른 애로(K사)
- 정부 인허가 문제(S사)
- 사전 행정지도 등을 통한 예고없이 법규에 근거한 환경위반단속은 시정 필요(S사)
- 구조조정중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명령을 아무런 사전통보 없이 보훈처로부터 접수(P사)

## 6. 금융 · 외환

- 은행서비스의 불만족(J사)
- 지속적인 경영적자에 따른 금융차입 애로(P사)
-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조달의 어려움(B사)
- 신설법인에 대한 금융기관의 평가시 초기 적자 시현에 대한 신용평가지 별도 배려 필요(L사)
- 노조의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B사)

## 7. 노동 · 인력

- 강성노조 및 투쟁 위주의 노조활동으로 인한 기업불안(H사)
- 노동법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Part-timer의 고용인정 등)필요(S사)
- 노동불안, 고임금, 저생산성의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음(S사)
- 노조의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B사)
- 민노총지부 지휘에 의한 3일간 파업(S사)
- 과격한 노동운동에 따른 경영 애로(I사)
- 현장 생산직 사원 수급의 어려움(H사)
- 노조 설립후 노사분규 발생(A사)
- 임금협상과 관련해 노조에서 창고를 점거해 공장가동을 중단한 바 있음(P사)
- 기능사원의 직업의식 부족으로 인해 이직률이 높고, 기능사원의 기술축적 불가능(N사)

## 8. 기타

-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H사)
- 관공서의 제품구매시 국산제품에 대한 가산점 부여(R사)
- 생산성을 초과하는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B사)
- 임대사무실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B사)
- 기초단체장의 초법적인 월권(S사)

### 3) 한국경제 / 비즈니스 애로 의견

1. 정부의 일관성있는 경제정책 유지 및 외투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A, I사)
2. 생산인력의 3차산업 유입 및 저생산성, 고임금으로 인한 제조업 공동화현상 우려(P사)
3. 한국경제는 내수 소비진작 중심의 정책에서 수출다변화정책으로 이행해야 하며, 이를위해 FTA지역 확대가 필요함(D사)
4. 외투기업 고충발생시 관계기관의 소극적인 대응자세 개선 시급 (A사)
5. 정부의 간섭이 배제된 자유시장 경제정책 우선, 벤처기업 및 부동산건설 등 정부주도적 조장정책 시정 요망(I사)
6. 인건비과다로 인한 외국투자사의 투자기피현상에 대한 대책 수립 필요(D사)
  - 한국내 인건비가 일본의 60~70%선에 달해 일본기업들의 對韓 투자기피현상 심화
7. 외투법인에 근무하는 합법 외국인근무자에 대한 신속한 비자, 체류기간 연장, 서류간소화(S사)
8. 해외교민들의 한국내 투자 활성화 대책 필요(R사)
9. 외투기업에 대한 형식적인 행정지원 지양(D사)
10. 공무원 근무자세의 변화 필요(S사)
11. 국내기업 보호정책이 많은 반면 외국인투자에 대한 혜택 부족 (D사)

12. 기업활동 관련 규제 완화 필요(S사)
13. 관광호텔에 대한 영세율 적용 요망(S사)
14. 노동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외투기업의 경쟁국대비 경영적 기초환경 정립 필요(D사)
15.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동조합관계, 근로조건관계, 채용관계 등 특수노동조건 정립 필요(H사)
16. 외국인 장기투자에 대한 인센티브제 필요(D사)
17. 관공서 및 직업훈련기관 등의 관련기관의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영문판 참고자료의 제공(S사)
18. 對중국 국가경쟁력 강화방안 수립 시급(A사)
19. 보훈처의 강제고용명령 개선 필요(P사)
20. 한국기업의 투명성 제고 필요(D사)
21.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우대방안 제고(A사)
22. 지방소재 도시의 인프라확충 긴요(S사)
23. 세무관서의 세무조사시 방법 개선 요망(I사)
24. 외국인근로자 체류허가기간의 연장 필요(K사)

#### 4) 외국인투자 지원센터(KISC)의 고충처리 서비스에 관한 의견

1. 인허가 관련 국내 행정관청에 대한 외국인투자 지원센터 고충처리 활동 홍보(A사)
2. 외투기업에 대한 투자확대 및 고충처리 서비스활동 강화 요망 (H사)
3. 고충처리 담당기관의 행정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조정권한 부여 필요(M사)
4. 외국인투자 지원센터의 원스톱서비스를 위한 실질적인 권한 필요 (T사)
5. 외국인투자 고충처리를 위해 단기간 파견서비스제도 도입 등 지원 제도의 확대 운영 바람직(S사)

## 15. 조사응답업체 개요

| 연번 | 회사명               | 소재 지역 | 연락처          | 업종  | 투자 국 | 투자 연도 |
|----|-------------------|-------|--------------|-----|------|-------|
| 1  | 한국GKN(주)          | 충남    | 041)620-6601 | 제조  | 유럽   | 1996  |
| 2  | HKS코리아            | 서울    | 02)785-6707  | 비제조 | 미국   | 1991  |
| 3  | 한국성전              | 경남    | 055)255-4191 | 제조  | 일본   | 1973  |
| 4  | (주)디디다이아          | 충남    | 041)934-8454 | 제조  | 일본   | 1995  |
| 5  | 동화다무라             | 경기    | 031)672-1154 | 제조  | 일본   | 1989  |
| 6  | 삼영잉크페인트제조(주)      | 경기    | 031)455-6177 | 제조  | 일본   | 1971  |
| 7  | 메케마코리아(주)         | 울산    | 052)256-0888 | 제조  | 기타   | 1999  |
| 8  | 한국그레이스(주)         | 인천    | 032)819-2640 | 제조  | 미국   | 1986  |
| 9  | 한국SMC공압(주)        | 서울    | 02)3219-0710 | 제조  | 일본   | 1997  |
| 10 | MIS Asia Co, Ltd. | 서울    | 02)764-8947  | 비제조 | 유럽   | 1998  |
| 11 | 한국보그워너 티 에스(주)    | 충북    | 043)879-1010 | 제조  | 미국   | 1988  |
| 12 | 한국프라스틱(주)         | 경남    | 055)351-2701 | 제조  | 일본   | 1996  |
| 13 | (주)신홍             | 경남    | 055)752-6511 | 제조  | 일본   | 1973  |
| 14 | 신들네트웍스            | 서울    | 02)3270-1509 | 비제조 | 미국   | 2001  |
| 15 | 한국브룩스퍼알아이오토메이션(주) | 서울    | 02)2008-5505 | 비제조 | 미국   | 1999  |
| 16 | 동일레나운             | 인천    | 032)270-3611 | 제조  | 일본   | 1973  |
| 17 | 도요타모터코리아          | 서울    | 02)3404-8231 | 비제조 | 일본   | 2000  |
| 18 | 한국수드케이            | 경북    | 054)278-2141 | 제조  | 유럽   | 1985  |
| 19 | 콜럼비아트라이스타영        | 서울    | 02)563-4000  | 비제조 | 미국   | 1990  |
| 20 | 바이드플러코리아          | 부산    | 051)740-6280 | 비제조 | 기타   | 1993  |
| 21 | CEH 인터내셔널         | 서울    | 02)512-3910  | 비제조 | 기타   | 1989  |
| 22 | (주)아이리스크코리아       | 서울    | 02)745-4067  | 비제조 | 일본   | 1988  |
| 23 | 아마노코리아(주)         | 서울    | 02)322-1373  | 제조  | 일본   | 1996  |
| 24 | 마하코리아             | 서울    | 02)579-4981  | 비제조 | 유럽   | 1996  |
| 25 | 한국와카              | 경남    | 055)295-4811 | 제조  | 일본   | 1987  |

|    |                 |    |              |     |    |      |
|----|-----------------|----|--------------|-----|----|------|
| 26 | 우일실업(주)         | 인천 | 032)818-0686 | 제조  | 미국 | 1998 |
| 27 | (주)리탈           | 경기 | 031)499-5961 | 제조  | 유럽 | 1996 |
| 28 | (주)ABB코리아       | 울산 | 041)529-2117 | 제조  | 유럽 | 1988 |
| 29 | (주)한국씨티즌정밀      | 경남 | 055)285-9001 | 제조  | 일본 | 1989 |
| 30 | (주)한국존슨앤존슨청주공장  | 충북 | 043)279-5603 | 제조  | 미국 | 1983 |
| 31 | 에어리퀴드코리아서비스(주)  | 전남 | 061)685-2292 | 제조  | 유럽 | 1996 |
| 32 | 한국후레임           | 서울 | 02)557-0964  | 비제조 | 일본 | 1994 |
| 33 | 블이정보통신(주)       | 경기 | 031)423-1423 | 제조  | 일본 | 1996 |
| 34 | 발저스한국코팅         | 경기 | 031)680-9921 | 제조  | 유럽 | 1996 |
| 35 | 대우자동차(주) 군산공장   | 전북 | 063)469-5203 | 제조  | 미국 | 2002 |
| 36 | Entegris Korea  | 경기 | 031)738-1181 | 제조  | 미국 | 1998 |
| 37 | 골드펌프            | 충북 | 043)275-7051 | 제조  | 미국 | 1982 |
| 38 | 유니레버코리아         | 서울 | 02)709-1739  | 제조  | 유럽 | 1993 |
| 39 | 인포디스크           | 경기 | 031)680-2500 | 제조  | 기타 | 2000 |
| 40 | 한국티티(주)         | 경남 | 055)290-1500 | 제조  | 일본 | 1976 |
| 41 | 한국스파이렉스 사코(주)   | 서울 | 02)525-5755  | 제조  | 유럽 | 1978 |
| 42 | 삼천산업(주)         | 경남 | 055)587-1077 | 제조  | 일본 | 1986 |
| 43 | 파텍(주)           | 경기 | 02)688-2152  | 비제조 | 유럽 | 1996 |
| 44 | (주)코아필름서울       | 서울 | 02)443-9901  | 제조  | 유럽 | 1997 |
| 45 | 삼영순화            | 울산 | 052)238-1453 | 제조  | 일본 | 1979 |
| 46 | 한국휘닉스테크놀로지(주)   | 서울 | 02)3461-8671 | 비제조 | 미국 | 1998 |
| 47 | NOKIA TMC Ltd.  | 경남 | 055)290-7720 | 제조  | 유럽 | 1984 |
| 48 | 동신프라스틱(주)       | 충남 | 041)858-7240 | 제조  | 일본 | 1989 |
| 49 | 삼양연마공업(주)       | 경북 | 054)335-7840 | 제조  | 미국 | 1988 |
| 50 | 동우화인캠(주)        | 경기 | 02)6250-1191 | 제조  | 일본 | 1991 |
| 51 | 한국알프스           | 광주 | 062)950-2113 | 제조  | 일본 | 1987 |
| 52 | 신성산업(주)         | 부산 | 051)245-8061 | 비제조 | 일본 | 1976 |
| 53 | (유)듀폰           | 울산 | 052)979-4022 | 제조  | 미국 | 1989 |
| 54 | BOC Gases Korea | 서울 | 02)780-9331  | 제조  | 유럽 | 1988 |
| 55 | (주)진방철강         | 서울 | 02)2270-6851 | 제조  | 기타 | 1985 |

|    |                  |    |              |     |    |      |
|----|------------------|----|--------------|-----|----|------|
| 56 | JUKSAN Machinery | 서울 | 02)2277-4584 | 비제조 | 기타 | 1992 |
| 57 | 평화산업(주)          | 대구 | 053)610-7000 | 제조  | 기타 | 1996 |
| 58 | UMICORE Korea    | 충남 | 041)620-0200 | 제조  | 기타 | 1999 |
| 59 | 라파즈 한라시멘트        | 서울 | 02)6001-7127 | 제조  | 유럽 | 2000 |
| 60 | 부루벨코리아           | 서울 | 02)3444-2203 | 비제조 | 유럽 | 1960 |
| 61 | 한국이야사까기공업        | 인천 | 032)811-8511 | 제조  | 일본 | 1982 |
| 62 | 한국대풍(주)          | 대구 | 053)593-2212 | 제조  | 일본 | 2001 |
| 63 | 한국쓰리엠(주)         | 서울 | 02)3771-4336 | 제조  | 미국 | 1979 |
| 64 | 태창산업(주)          | 인천 | 032)813-8201 | 제조  | 미국 | 1993 |
| 65 | 호스록코리아(주)        | 인천 | 032)817-3521 | 제조  | 유럽 | 1994 |
| 66 | 한국엔젤기계(주)        | 경기 | 031)6100-120 | 제조  | 유럽 | 1997 |
| 67 | Korea TrieneKens | 서울 | 02)771-6250  | 비제조 | 유럽 | 2000 |
| 68 | FAG 한화베어링        | 서울 | 02)729-3085  | 제조  | 유럽 | 1998 |
| 69 | 동화 JEM(주)        | 서울 | 02)734-8662  | 제조  | 일본 | 1999 |
| 70 | 리소코리아            | 서울 | 02)752-6611  | 비제조 | 일본 | 2001 |
| 71 | 사이버넷(주)          | 서울 | 02)501-8418  | 제조  | 미국 | 2000 |
| 72 | 프랑스생명보험          | 서울 | 02)3709-7431 | 비제조 | 유럽 | 1991 |
| 73 | 한국갤러웨이골프         | 서울 | 02)3218-1900 | 비제조 | 미국 | 1998 |
| 74 | 하나알리안츠투자신탁운용     | 서울 | 02)3771-2945 | 비제조 | 유럽 | 2000 |
| 75 | 캠브리지캐피탈          | 경기 | 02)703-7805  | 비제조 | 일본 | 1998 |
| 76 | (주)한국VOPAK터미널    | 서울 | 02)799-3810  | 비제조 | 유럽 | 1970 |
| 77 | (주)코셀            | 전북 | 063)462-8450 | 제조  | 일본 | 1973 |
| 78 | NCH Korea Ltd.   | 서울 | 02)3482-0204 | 제조  | 미국 | 1992 |
| 79 | 동서석유화학(주)        | 서울 | 02)3775-0623 | 제조  | 일본 | 1969 |
| 80 | 스카니아코리아(주)       | 서울 | 02)3218-0811 | 제조  | 유럽 | 1997 |
| 81 | 선비마카페리(주)        | 경기 | 02)568-8990  | 제조  | 유럽 | 2001 |
| 82 | (주)유니원커뮤니케이션     | 서울 | 02)567-1555  | 비제조 | 일본 | 2002 |
| 83 | 칠량자연농원           | 전남 | 061)433-2011 | 제조  | 기타 | 1998 |
| 84 | 부광헬봇(주)          | 부산 | 051)728-4274 | 제조  | 유럽 | 1997 |
| 85 | (주)해운대그랜드호텔      | 부산 | 051)740-0212 | 비제조 | 일본 | 1987 |

|     |                              |    |              |     |    |      |
|-----|------------------------------|----|--------------|-----|----|------|
| 86  | 매소나이트코리아(주)                  | 경기 | 031)498-4388 | 제조  | 기타 | 1998 |
| 87  | 삼우카뱅크(주)                     | 서울 | 02)780-1884  | 비제조 | 일본 | 2001 |
| 88  | (주)마끼다코리아                    | 서울 | 02)3471-3111 | 비제조 | 일본 | 1996 |
| 89  | 에스비티(주)                      | 경기 | 031)999-7400 | 제조  | 유럽 | 1990 |
| 90  | (주)한국다반                      | 인천 | 032)813-5621 | 제조  | 일본 | 1988 |
| 91  | 시바스페셜티케미칼스(주)                | 서울 | 02)3451-7308 | 비제조 | 유럽 | 1990 |
| 92  | KWE Korea                    | 서울 | 02)322-2508  | 비제조 | 일본 | 1991 |
| 93  | RZB Austria Bank Korea       | 서울 | 02)398-5840  | 비제조 | 유럽 | 1999 |
| 94  | 범우화학공업(주)                    | 서울 | 02)571-6321  | 제조  | 일본 | 1982 |
| 95  | (주)고세코리아 코스메틱스               | 서울 | 02)565-2311  | 비제조 | 일본 | 2001 |
| 96  | 한룩전자(주)                      | 경기 | 031)493-8811 | 제조  | 기타 | 1993 |
| 97  | 동양전자초자(주)                    | 경북 | 054)463-2724 | 제조  | 일본 | 1973 |
| 98  | 캐리어코리아                       | 경기 | 031)370-5240 | 제조  | 미국 | 1999 |
| 99  | 한국프츠마이스터                     | 경기 | 031)433-4541 | 제조  | 유럽 | 1998 |
| 100 | 비즈파이코리아(주)                   | 경기 | 031)719-8005 | 비제조 | 미국 | 2001 |
| 101 | 코리아오토클라스(주)                  | 충남 | 041)860-5021 | 제조  | 일본 | 2000 |
| 102 | 성창메디칼                        | 서울 | 02)3452-3385 | 비제조 | 일본 | 1995 |
| 103 | 볼보트럭코리아                      | 서울 | 02)3780-8407 | 비제조 | 유럽 | 1996 |
| 104 | 세경소와(주)                      | 강원 | 033)731-0363 | 제조  | 일본 | 1988 |
| 105 | 아답트젠제약코리아                    | 서울 | 02)6000-6300 | 비제조 | 일본 | 1999 |
| 106 | 유엘코리아                        | 서울 | 02)784-4346  | 비제조 | 미국 | 1996 |
| 107 | 대한칼소닉                        | 충남 | 041)580-6225 | 제조  | 일본 | 1990 |
| 108 | 한국하니웰(주)                     | 충남 | 041)559-4520 | 제조  | 미국 | 1984 |
| 109 | Praxair Surface Technologies | 충남 | 041)560-2400 | 제조  | 미국 | 1997 |
| 110 | 금호미쓰이화학(주)                   | 전남 | 02)6303-3760 | 제조  | 일본 | 1989 |
| 111 | 세이와코리아                       | 광주 | 062)943-2606 | 제조  | 일본 | 1999 |
| 112 | KENCO                        | 경기 | 031)451-1403 | 제조  | 일본 | 1987 |
| 113 | 한국닛다무아                       | 경북 | 054)461-6676 | 제조  | 일본 | 1989 |
| 114 | 타이코에이엔피(주)                   | 서울 | 02)3415-4602 | 제조  | 미국 | 1986 |
| 115 | MEMC KOREA                   | 충남 | 041)550-4072 | 제조  | 미국 | 1990 |

|     |                |    |              |     |    |      |
|-----|----------------|----|--------------|-----|----|------|
| 116 | (주)한국시세이도      | 서울 | 02)564-5200  | 비제조 | 일본 | 1997 |
| 117 | 프랭클린템플턴        | 서울 | 02)3774-0647 | 비제조 | 미국 | 1997 |
| 118 | 디엠푸드(주)        | 서울 | 02)794-1646  | 제조  | 유럽 | 1985 |
| 119 | 베텔스만코리아        | 서울 | 02)3415-1923 | 비제조 | 유럽 | 1999 |
| 120 | (주)EC21        | 서울 | 02)6000-4382 | 비제조 | 기타 | 2001 |
| 121 | (주)한미프러그       | 경기 | 02)382-7277  | 비제조 | 미국 | 1991 |
| 122 | 한국피앤지          | 충남 | 041)559-0006 | 제조  | 미국 | 1989 |
| 123 | 유고알앤디          | 서울 | 02)868-0947  | 제조  | 일본 | 1996 |
| 124 | (주)서전          | 전북 | 063)536-1441 | 제조  | 일본 | 1985 |
| 125 | (주)디킴스커뮤니케이션즈  | 서울 | 02)546-6789  | 비제조 | 기타 | 1999 |
| 126 | (주)열림기술        | 서울 | 02)589-4920  | 제조  | 기타 | 1999 |
| 127 | 한불종합금융(주)      | 서울 | 02)777-7711  | 비제조 | 기타 | 1977 |
| 128 | 디지털씨큐          | 서울 | 02)566-0772  | 제조  | 미국 | 2000 |
| 129 | 엠케이에스코리아(주)    | 경기 | 031)717-9244 | 비제조 | 미국 | 1994 |
| 130 | 한국코닥(주)        | 경기 | 02)708-5422  | 비제조 | 미국 | 1989 |
| 131 | 왈브로코리아(주)      | 충남 | 041)500-2011 | 제조  | 유럽 | 1988 |
| 132 | (유)커넥션트        | 서울 | 02)3430-2804 | 비제조 | 미국 | 1991 |
| 133 | 디아지오코리아(주)     | 서울 | 02)3466-0755 | 비제조 | 유럽 | 1989 |
| 134 | (주)푸른영도        | 부산 | 051)464-4946 | 비제조 | 일본 | 2001 |
| 135 | BHP-KOREA      | 서울 | 02)715-5821  | 비제조 | 미국 | 1994 |
| 136 | INP중공업         | 울산 | 052)252-9129 | 제조  | 기타 | 1999 |
| 137 | 프리즘커뮤니케이션(주)   | 서울 | 02)3700-0461 | 비제조 | 일본 | 1999 |
| 138 | 현대디지털엔터테인먼트(주) | 서울 | 02)566-2533  | 비제조 | 일본 | 1996 |
| 139 | 코리아신예          | 충남 | 041)546-5228 | 제조  | 일본 | 1987 |
| 140 | 믹샤일리스코리아(주)    | 서울 | 02)384-7114  | 제조  | 유럽 | 1999 |
| 141 | 한국후지사약품        | 서울 | 02)564-3180  | 비제조 | 일본 | 1989 |
| 142 | 오하우스코리아        | 서울 | 02)6001-3101 | 비제조 | 미국 | 1998 |
| 143 | 어플라이드머티리얼코리아   | 충남 | 041)559-7856 | 제조  | 미국 | 1989 |
| 144 | 스미카다께다야그로서울(주) | 서울 | 02)558-4810  | 비제조 | 일본 | 1996 |
| 145 | 한성자동차(주)       | 서울 | 02)532-3421  | 비제조 | 기타 | 1987 |

|     |              |    |              |     |    |      |
|-----|--------------|----|--------------|-----|----|------|
| 146 | 메리츠증권        | 서울 | 02)3779-4625 | 비제조 | 기타 | 1999 |
| 147 | SKF 자동차부품(주) | 경남 | 055)278-2411 | 제조  | 유럽 | 1995 |
| 148 | 한국이콜랩        | 서울 | 02)3474-5333 | 제조  | 미국 | 1987 |
| 149 | HSBC Korea   | 서울 | 02)2004-0000 | 비제조 | 유럽 | 1981 |
| 150 | 대한통운터미널(주)   | 서울 | 02)3782-0214 | 비제조 | 기타 | 1999 |
| 151 | 까라로코리아(주)    | 울산 | 052)264-6400 | 제조  | 기타 | 1999 |
| 152 | 벨하이텍         | 대전 | 042)933-5590 | 제조  | 유럽 | 2001 |
| 153 | 트란스두산운용      | 대전 | 042)485-1715 | 비제조 | 유럽 | 2002 |
| 154 | 에크론정보통신      | 대전 | 042)936-9000 | 제조  | 미국 | 2002 |
| 155 | 헤이트론(주)      | 대전 | 042)863-2840 | 제조  | 기타 | 2001 |
| 156 | 노베라운틱스코리아(주) | 대전 | 042)602-3703 | 제조  | 미국 | 2001 |
| 157 | (주)에픽슨       | 대전 | 042)862-6020 | 제조  | 일본 | 2002 |
| 158 | 한국로버트보쉬기전(주) | 대전 | 042)939-7740 | 제조  | 유럽 | 1994 |
| 159 | 다이나캐스트       | 강원 | 033)344-1903 | 제조  | 유럽 | 1999 |
| 160 | (주)수한        | 강원 | 033)342-0601 | 제조  | 일본 | 1986 |
| 161 | 씨월드          | 강원 | 033)747-4480 | 비제조 | 유럽 | 2002 |
| 162 | 로얄소브린(주)     | 인천 | 032)820-2000 | 제조  | 미국 | 1998 |
| 163 | 엘겔하드코리아      | 인천 | 032)812-3535 | 제조  | 미국 | 1998 |
| 164 | 이한인터넷방송(주)   | 인천 | 032)508-7744 | 비제조 | 미국 | 2000 |
| 165 | 프로텍          | 인천 | 032)822-9179 | 제조  | 기타 | 2001 |
| 166 | 서광에이에프터(주)   | 경기 | 031)499-0445 | 제조  | 유럽 | 2000 |
| 167 | 이나베어링(주)     | 경기 | 031)490-6901 | 제조  | 유럽 | 1992 |
| 168 | 에피밸리(주)      | 경기 | 031)767-0300 | 제조  | 기타 | 2000 |
| 169 | 한국고요써모시스템(주) | 경기 | 031)654-3450 | 제조  | 일본 | 1996 |
| 170 | 유엔절          | 경기 | 031)710-6200 | 비제조 | 미국 | 2001 |
| 171 | 보워터한라제지(주)   | 전남 | 061)460-6170 | 제조  | 미국 | 1997 |
| 172 | 엘지다우카보네이트    | 전남 | 061)680-6630 | 제조  | 미국 | 1999 |
| 173 | 한국화인케미칼(주)   | 전남 | 061)688-4811 | 제조  | 일본 | 1983 |
| 174 | 라파즈벽산석고(주)   | 전남 | 061)685-2300 | 제조  | 유럽 | 1997 |
| 175 | 신한포토닉스(주)    | 광주 | 062)949-7155 | 제조  | 일본 | 2001 |

|     |                 |    |              |     |    |      |
|-----|-----------------|----|--------------|-----|----|------|
| 176 | 한국신광마이크로에レクト로닉스 | 전남 | 061)753-8801 | 제조  | 일본 | 1987 |
| 177 | 우리로광통신(주)       | 광주 | 062)602-8100 | 제조  | 기타 | 1998 |
| 178 | (주)초석건설         | 전남 | 062)745-1960 | 비제조 | 일본 | 1999 |
| 179 | 코리아카본블랙(주)      | 전남 | 061)690-5110 | 제조  | 유럽 | 1998 |
| 180 | 케이알코폴리머(주)      | 전남 | 061)688-7708 | 제조  | 유럽 | 1998 |
| 181 | (주)티피에스코리아      | 광주 | 062)952-4477 | 제조  | 유럽 | 1995 |
| 182 | (주)월드산업         | 광주 | 062)943-6697 | 제조  | 일본 | 2001 |
| 183 | (주)애니셀          | 광주 | 062)954-1100 | 제조  | 유럽 | 2000 |
| 184 | (주)금호에이치티오토닉스   | 전남 | 061)390-8000 | 제조  | 일본 | 1988 |
| 185 | (주)핀크스          | 제주 | 064)792-5200 | 비제조 | 일본 | 1990 |
| 186 | 남제주리조트개발(주)     | 제주 | 064)747-1118 | 비제조 | 기타 | 1999 |
| 187 | 제주팔레스개발(주)      | 제주 | 064)753-8811 | 비제조 | 일본 | 1986 |
| 188 | 삼광개발(주)         | 제주 | 064)752-8222 | 비제조 | 일본 | 1988 |
| 189 | 대아관광(주)         | 제주 | 064)799-3111 | 비제조 | 미국 | 1995 |
| 190 | 한국게이츠(주)        | 대구 | 053)610-6112 | 제조  | 미국 | 1989 |
| 191 | 대한소결금속(주)       | 대구 | 053)610-0700 | 제조  | 일본 | 1987 |
| 192 | 남양금속(주)         | 대구 | 053)610-7541 | 제조  | 일본 | 1987 |
| 193 | 한국신동공업(주)       | 대구 | 053)615-4901 | 제조  | 일본 | 1986 |
| 194 | (주)모간           | 대구 | 053)615-1061 | 제조  | 유럽 | 1978 |
| 195 | 삼성시그노드(주)       | 경북 | 054)280-0703 | 제조  | 미국 | 1999 |
| 196 | (주)정일스톨트헤븐울산    | 울산 | 052)238-8881 | 비제조 | 기타 | 2001 |
| 197 | LG-NIKKO동제련     | 울산 | 052)231-0112 | 제조  | 일본 | 1999 |
| 198 | 에너지오토모티브시스템즈(주) | 경북 | 054)760-2130 | 제조  | 유럽 | 2000 |
| 199 | 한주금속(주)         | 울산 | 052)231-1021 | 제조  | 일본 | 1998 |
| 200 | 한국오리베스트         | 경북 | 054)280-0703 | 제조  | 미국 | 1999 |
| 201 | 월로펌프산업(주)       | 충북 | 043)878-1020 | 제조  | 유럽 | 1987 |
| 202 | 코스파             | 충북 | 043)877-1748 | 제조  | 일본 | 1991 |
| 203 | (유)한국싸이즈게터스     | 충북 | 043)537-6000 | 제조  | 유럽 | 1978 |
| 204 | 워터로직매뉴팩처링(주)    | 충북 | 043)533-9673 | 제조  | 유럽 | 2000 |
| 205 | 아주야마이찌전기공업(주)   | 충북 | 043)877-3361 | 제조  | 일본 | 1987 |

|     |               |    |              |     |    |      |
|-----|---------------|----|--------------|-----|----|------|
| 206 | 영신퀴츠(주)       | 충북 | 043)535-2338 | 제조  | 일본 | 1985 |
| 207 | 한국스미더스오아시스(주) | 충남 | 041)582-8000 | 제조  | 미국 | 1987 |
| 208 | 한국에프시아(주)     | 경북 | 054)760-9130 | 제조  | 유럽 | 1997 |
| 209 | 한국소니전자(주)     | 경남 | 055)250-0380 | 제조  | 일본 | 1972 |
| 210 | 한국동경실리콘(주)    | 경남 | 055)295-2111 | 제조  | 일본 | 1972 |
| 211 | 한국동경전자        | 경남 | 055)290-1030 | 제조  | 일본 | 1971 |
| 212 | 한국태양유전(주)     | 경남 | 055)290-7411 | 제조  | 일본 | 1972 |
| 213 | 한국산연(주)       | 경남 | 055)292-5961 | 제조  | 일본 | 1973 |
| 214 | 한국동광(주)       | 경남 | 055)250-5550 | 제조  | 일본 | 1971 |
| 215 | 한국일신(유)       | 경남 | 055)295-9660 | 제조  | 일본 | 1987 |
| 216 | 한국중권(주)       | 경남 | 055)294-0511 | 제조  | 일본 | 1973 |
| 217 | (주)케이엠폴리머텍    | 강원 | 033)731-7481 | 제조  | 일본 | 2001 |
| 218 | HUF Korea     | 충남 | 041)559-6431 | 제조  | 유럽 | 1995 |
| 219 | (주)신창코넥타      | 충남 | 041)564-7370 | 제조  | 일본 | 1994 |
| 220 | 이마요시코리아(주)    | 충남 | 041)621-3101 | 제조  | 일본 | 1999 |
| 221 | (주)백륜         | 충남 | 02)512-0692  | 제조  | 일본 | 2000 |
| 222 | 진로발렌타인스(주)    | 서울 | 02)3466-5784 | 제조  | 유럽 | 2000 |
| 223 | 페리(유)         | 서울 | 02)3460-1810 | 비제조 | 유럽 | 1994 |
| 224 | 해태음료(주)       | 충남 | 041)570-1100 | 제조  | 일본 | 2000 |
| 225 | 한국필립모리스       | 서울 | 02)3709-0700 | 제조  | 유럽 | 1989 |
| 226 | 텔파이 성우        | 강원 | 033)730-2020 | 제조  | 유럽 | 1998 |
| 227 | (주)라이거시스템즈    | 경기 | 02)3677-4491 | 제조  | 미국 | 1999 |
| 228 | 한국유리공업(주)     | 전북 | 063)460-4220 | 제조  | 유럽 | 1998 |
| 229 | FAG한화베어링      | 전북 | 063)210-5544 | 제조  | 유럽 | 1998 |
| 230 | (주)동부아데카      | 전북 | 063)262-5230 | 제조  | 일본 | 1991 |
| 231 | 크레이벨리코리아(주)   | 전북 | 063)260-2110 | 제조  | 기타 | 1998 |
| 232 | 한국고덴시(주)      | 전북 | 063)839-2123 | 제조  | 일본 | 1980 |
| 233 | 프로텍스코리아       | 전북 | 063)261-7610 | 제조  | 유럽 | 1990 |
| 234 | 삼양화성          | 전북 | 063)210-1114 | 제조  | 일본 | 1989 |
| 235 | 신젠타코리아(주)     | 전북 | 063)830-5730 | 제조  | 유럽 | 1998 |

|     |                         |    |              |     |    |      |
|-----|-------------------------|----|--------------|-----|----|------|
| 236 | 한국씨엔씨(주)                | 전북 | 063)260-2042 | 제조  | 기타 | 1999 |
| 237 | (주)SUN BEACH            | 인천 | 032)511-2060 | 비제조 | 일본 | 2000 |
| 238 | 셀레콤(주)                  | 경기 | 031)322-7080 | 제조  | 기타 | 2000 |
| 239 | 알트코리아                   | 경기 | 031)299-1261 | 제조  | 미국 | 1987 |
| 240 | (주)동성엔에스씨               | 부산 | 051)200-4813 | 제조  | 유럽 | 1998 |
| 241 | SVG코리아                  | 서울 | 02)581-8833  | 제조  | 유럽 | 1998 |
| 242 | 록엔스터치아시아(주)             | 부산 | 051)831-1256 | 제조  | 유럽 | 2000 |
| 243 | Bosch Rexroth Korea     | 부산 | 051)260-0707 | 제조  | 유럽 | 2000 |
| 244 | 오에프티(주)                 | 충남 | 041)620-9009 | 제조  | 일본 | 1990 |
| 245 | 삼성코닝정밀유리(주)             | 경북 | 054)470-4972 | 제조  | 미국 | 1995 |
| 246 | (주)스타빌루스                | 부산 | 051)979-1511 | 제조  | 유럽 | 2001 |
| 247 | 삼성테스코(주)                | 서울 | 02)3459-8887 | 비제조 | 유럽 | 1999 |
| 248 | 일본국제상선(주)               | 서울 | 02)756-9036  | 비제조 | 일본 | 2000 |
| 249 | AVON 프로덕츠               | 서울 | 02)6250-6687 | 비제조 | 미국 | 2000 |
| 250 | Sanofi-Synthelabo Korea | 서울 | 02)2105-0503 | 제조  | 유럽 | 1986 |
| 251 | (주)엔엔에이코리아              | 서울 | 02)730-6131  | 비제조 | 일본 | 1998 |
| 252 | 유니참(주)                  | 서울 | 02)562-6151  | 제조  | 일본 | 1999 |
| 253 | FSBTI Asia              | 서울 | 02)884-5322  | 비제조 | 미국 | 1999 |
| 254 | 캐논코리아                   | 서울 | 02)6445-0011 | 비제조 | 일본 | 1993 |
| 255 | 한국아그파산업(주)              | 경기 | 031)490-9111 | 제조  | 유럽 | 1995 |
| 256 | 아르네삼성(주)                | 서울 | 02)3474-9082 | 제조  | 유럽 | 1999 |
| 257 | Delavel Seggi           | 서울 | 02)796-8983  | 비제조 | 유럽 | 1994 |
| 258 | 한국오므론(주)                | 서울 | 02)3218-5821 | 비제조 | 일본 | 1989 |
| 259 | 한국바이오래드(주)              | 서울 | 02)3473-4460 | 비제조 | 미국 | 1998 |
| 260 | 힐티코리아(주)                | 경기 | 031)288-2970 | 비제조 | 유럽 | 1986 |
| 261 | P&G Korea               | 서울 | 02)2006-8313 | 제조  | 미국 | 1989 |
| 262 | 폴리미래                    | 서울 | 02)2160-8911 | 제조  | 유럽 | 2000 |
| 263 | 그락소스미드클라인               | 서울 | 02)709-4222  | 제조  | 유럽 | 1986 |
| 264 | 헤펠레코리아(주)               | 경기 | 031)760-7610 | 제조  | 유럽 | 1995 |
| 265 | (주)알파메탈                 | 경기 | 031)433-1458 | 제조  | 유럽 | 1983 |
| 266 | NICCA Korea(주)          | 대구 | 053)356-5821 | 제조  | 일본 | 1971 |

# 설문조사 양식 : 별첨 참조